불자교수 만난 자승 스님 "전법 적극 지원"

10월 21일 동아리 교수 오찬
전법 현장 어려움 들으며 소통
"불교동아리 年 3천만원 지원"
동아리 지도교수 간담회 개최
이상훈 교수 "문화로 다가가야"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10월 21일 서울 강남 봉은사 구생원에서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들과 오찬을 가졌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전국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를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연간 3000만원의 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10월 21일 서울 강남 봉은사 구생원에서 불교동아리 지도교수들과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과 김기봉(경기대)·박치완(한국외대)·김용진(경상국립대)·장상목(동아대)·김현효(공주대)·송윤미(강원대)·김성천(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오찬에서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다. 자승 스님은 "1교구-1대학 불교 동아리 설립을 목표로 삼고 24개 교구본사에서 1년에 30개 대학 불교동아리 창립을 추진한다"면서 "대학 불교동아리에 연간 활동비 3000만원을 지원하려 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동아리 구성원 모두가 소신껏 전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동아리 회원과 불자기업을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자승 스님은 "신행을 열심히 하고 학업 성적도 우수한 학생은 한국사회와 불교의 미래 인재"라며 "이들이 장학금도 받고, 불자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1월 11일 코엑스에서 '사부대중 전법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전법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전법기금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도교수들도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김현호 공주대 교수는 "마곡사의 지원으로 최근 불교동아리가 다시 창립됐다. 현재 61명의 학생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학교에 불교동아리가 창립되니 이에 영향을 받아 불자 교수회도 생겼다. 전법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미 강원대 교수는 "현재 불교학생회는 동아리실만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승 스님께서 대학생 전법을 강조해주셔서 힘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에 앞장서 활동하는 불자교수들이 봉은사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희망을 느낀다. 앞으로도 대학생 전법에 대한 기탄없는 조언을 바란다. 상월결사와 '원팀'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오찬 후 자승 스님은 미리 준비한 단주를 교수들에게 일일 걸어주며 배웅했다. 오찬을 마친 교수들은 봉은사 향적원으로 자리를 옮겨 '대학생 전법을 위한 불교동아리 지도교수 간담회'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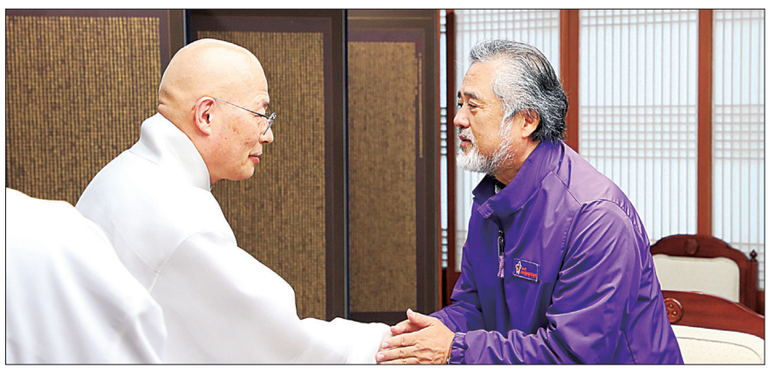
간담회에서 이상훈 교불련 회장은 '대학생 전법 선언과 불교동아리의 재탄생'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대학생 전법의 필요성과 전법 노하우를 설명했다. 이상훈 회장은 해체 위기까지 갔던 대전대 불교동아리 '유심회'의 명맥을 되살렸고, 현재도 지도교수로 활동 중이다.

그는 학생이 불교를 소비하는 주체로 생각하고 그들의 니즈(needs)부터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이 회장은 "학생들은 불교를 종교로만 느끼지 않는다. 이들이 불교를 문화로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간담회에 참가한 40여 명의 교수가 각 대학별 불교 동아리 상황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전법 방안들을 소개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불교가 공허함 위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
오체투지·추모법회 등 아픔 나눠
진우 스님 "종지협 메시지 발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정민 운영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한순간 싸늘한 주검이 된 가족을 맞아야 했던 희생자 유가족들이 연신 눈물을 흘리며 불교계에 감사를 전했다. 고인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법회부터 기도회,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오체투지, 10·27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종단 차원에서 마련한 49재까지. 사고 직후부터 아픔을 함께 나눠준 불교계가 고마웠다.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이정민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주영 아버지), 송후봉(송은지 아버지), 이성환(이상은 아버지), 김호경(김의현 어머니), 김화숙(김현수 어머니) 씨가 참석했다. 사회부장 도심 스님,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 부위원장 고금 스님, 양한웅 집행위원장도 배석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간다. 비극적 참사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안타깝다"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스님은 이어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니 이젠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져 남은 유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며 "정치권이 합의를 잘해서 특별법이 제정되길 기대한다. 조계종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자식들을 갑작스레 보내고 공허함이 너무 컸는데, 아이들을 위해 불교계에서 49재까지 열어줘 많은 위로와 위안을 얻었다"며 "불자가 아닌 유가족들에게도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인사했다.

이날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초청장을 전하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는다. 스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발표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우리나라 7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을 맡고 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의해 위로 메시지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화숙 씨는 스님의 진심어린 위로에 연신 눈물을 훔치며 큰절을 올렸다. 앞서 유가족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위패가 봉안된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헌화와 절을 하며 고인들을 추모했다.

김내영 기자

봉은사·보문사 주지 원명·선조 스님 재임

총무원장 진우 스님 "사찰관리에 최선을" 당부


원명 스님


선조 스님

조계종 직영사찰 서울 봉은사와 강화 보문사 주지에 현 주지인 원명 스님과 선조 스님이 재임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23일과 25일 원명 스님을 봉은사 주지로, 선조 스님을 보문사 주지로 각각 재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23일 봉은사 주지 임명식에서 "수도권은 물론 전국 사찰 중에서 신도활동이 가장 활발한 만큼 가람 수호와 수행정진, 신도포교 등 모든 부분에서 정성 들여 사찰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그동안 주지(사찰관리인) 역할을 잘 수행한 만큼 다시 한 번 맡은 소임에 진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원명 스님은 "종단 직영사찰로서 위상에 걸맞도록 종단 외호와 사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25일 선조 스님에게 "보문사는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관음성지로 기도와 대중포교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며 "선조 스님은 그동안 보문사를 잘 이끌어 오신 만큼 앞으로도 사찰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선조 스님은 "종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정진하는 마음으로 사찰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에 남전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에 남전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선업 스님은 10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남전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선업 스님은 "남전 스님을 부장으로 모시면서 포교전문가 집단이 된 것 같아 든든하다"면서 "신임 포교부장스님은 포교국장을 역임한 만큼 모든 영역에서 여러모로 잘 살피기 바라며 포교원이 꼭 해야 할 일들에 전문성을 적극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전 스님은 "포교국장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포교원에서 해야할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포교원장스님과 교역직 스님들, 종무원들을 잘 모셔 열심히 일하는 포교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남전 스님은 대운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다. 동국대 졸업 후 포교원 포교국장, 총무원 총무국장, 기획국장, 조계사 선림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정혜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조계종 종관위,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

10월 24일, 제128차 회의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오심)는 10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28차 회의를 열었다. 종관위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추천 관련과 관련해 성월 스님 후임으로 진화 스님(제18대 중앙종회의원)과 중현 스님(증심사 주지)을 복수 추천했다. 원명 스님(봉은사 주지) 후임으로는 원명 스님과 해량 스님(상원사 주지)을,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 후임으로 호산 스님과 보관 스님(수국사 주지)을, 경우 스님(선운사 주지) 후임으로 경우 스님과 현적 스님(선운사 총무국장)을 추천했다.

9월 4일 개최된 126차 회의에서 보류된 정문 스님 후임으로는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과 성요 스님(청명사 주지)을 추천했다. 이와 함께 감사 담화 스님의 사직으로 인한 후임에는 법성 스님(신륵사 주지)과 법수 스님(신륵사 총무국장)을 추천했다.

종관위는 이날 학교법인 승가학원 교육이사도 추천했다. 2024년 2월 6일 임기가 만료되는 혜도 스님 후임으로 동국대 불교학부 조교수 정완 스님과 한남대 강사 경완 스님을 추천했다.

임은호 기자

